

연중 제19주일

기도서 409 면 (C해)

제1독서: 지혜 18, 6-9

제2독서: 히브 11, 1-2, 8-19

복음: 루가 12, 32-48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서서노동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소순형 신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막 회갑을 지내신 분이다.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단다. 이제 고생을 면하고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아쉬워들 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특히 이제 고생을 면하고 살만해지니까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젊어서부터 남편 없이 어려운 살림에 고생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이였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할려고 생각하니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말로도 들렸다. 순간 하느님의 부르심은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르시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에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 언제나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도둑이 전혀 생각치 않을 때에 침입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 역시도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죽음이란 확실한 노인이나 병자만의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천주교 공동묘지에 가보면 이제 막 봉분을 만든 새 묘비에 아는 이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만났던 그분의 묘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새삼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는 보통 죽음은 남의 것인양 생각하고 안심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우약의 노야시대에, 뫼시대에 그랬었다. 마음 놓고 안심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쳐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가.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신다. 죽음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멀리 있어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를 각성시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서 어느 때든지 심판자인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실한 종 이 야기를 비유로 드신다.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린 충실한 종에게 주인은 그 종의 충실성 때문에 오히려 종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시중을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종은 행복하리라고 덧붙이셨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충실하게 정신을 차리면서 산 우리들의 노고를 생각해 주시어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시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뒤로 늦추지 말고 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제 여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죽음이 울지도 모른다. 아니면 늙고 병들어 마음 뿐이지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습관이 되지 않아 여유는 있지만 허송세월이 될지도 모른다.

(주현동 주임신부)



## 덕분에 깨끗해졌네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얼굴 모습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마음 씩씩이나 행동지지가 각양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기도 한다. 지난 81년 조전교구설립 15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을 때, 여의도 광장이 깨끗했다 하여 매스컴들은 찬사를 보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들이나 이웃이 다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교구 산간학교가 끝나고, 우리는 빌려쓴 중계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찬사를 들었다. "덕분에 학교가 깨끗해졌네요."—이 말을 우리는 왜 찬사로 생각해야 하는가? 뒷처리를 맡고히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런 인사를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실례를 놓고 냉정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150주년 신앙대회 본부는 행사가 끝난 뒤 「보속」으로 쓰레기 줍기를 당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떻게 보았는지간에, 보속이전의 자발적인 참여를 아쉬워한 것이다. 산간학교 끝에는 본당들이 서로 갈길 이 바빠서 전체적인 뒷처리에 신경을 못쓰는 것으로 보였다. 본부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실과 복도 청소를 하고, 변소나 하수구와 쓰레기장은 본부 임원들이 손수 나서서 뒷처리를 했다. 누가 어떻게 했든 잘됐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를 잡고 넘어가야 한다. 내일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야 하고 남달라야 한다. 무언가 다른 모습을 크리스찬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빛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숲 정 이 산책



### 죽더라도 교무금은

박 창 순(분도)

### 교구 울뜨레아에 즈음하여

꾸르실로 지도신부 김 병 환

꾸르실로 운동의 발상지는 스페인이다. 창시자 후안 에르바스 주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49년 1월 1일 스페인 마올카섬에서 처음 교육이 실시되면서 크리스찬 생활의 꾸르실로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꾸르실로에 대해서 한 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굳이 표현한다면 순례자 단기강습 또는 크리스찬 생활의 단기강습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생활케 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내 이웃과의 따뜻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굳게 결합되는 교육이다. 그러기에 꾸르실로는 하나의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오 16,16)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이야기 한다.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즉 신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길은 그리스도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속 깊숙이에서 나오는 진실성 바로 그것이다. 꾸르실로 교육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체험케 한다.

비록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을 느끼면서 생의 아름다움과 축복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따뜻한 사랑과 고마움을 배운다. 그래서인지 꾸르실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과 할지라도 반가웬게 공감할 가지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고 있고 또 스스로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교구 내에 꾸르실로가 들어온지 10여년이 넘는다. 남성은 18차, 여성은 14차의 교육을 마쳤고 그동안에 꾸르실로 교육을 받은 꾸르실리스타도 1,500여 분이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이미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멀리 이주하신 분, 타교구로 전입되신 분들도 계시다. 우리 교구 내 꾸르실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다같이 한자리에 만나 보고 싶다. 아무런 조건없이, 아무런 부담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으신 분들의 말씀도 듣고, 교육을 받을 때 것처럼 많은 기도와 회생, 도움을 주셨던 고마운 선배님들도 만나고, 정들었던 동창생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 교구에서는 참으로 오래간 만에 교구 울뜨레아를 마련하였다.

오는 28일(일요일) 우리 교구 내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를 초대하고자 한다. 한자리에 같이 합시다. 같이 해서 교구의 어려움도 나누고 내년 200주년 행사도 함께 준비합시다.

개구장이 햇님이 낮게 깔린 구름사이로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계절의 심장을 찌르던 7월의 첫주일에 있었던 일이다. 성당 안에서는 새 생명이 되어 태어나는 세례성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생애를 모두 쏟아넣은 듯 깊게 패여진 주름 가득한 시골 할머니가 손을 잡아끌어 한적한 곳에 앉으시더니 손가방을 열으시고 정성껏 쓴 신문 문지를 조심스럽게 펴보이시는데 고급담배 장미와 솔 두갑이 전부였다. 교무금 내시랴 봉헌금 내시랴 어린 손주들 사랑도 못사주시는 '할머니가 피워볼 엄두도 못내실 담배가 어디서 나셨는지? 그런데 "이거, 좋은 담배여?" 하고 웃음 가득하시면서도 조심스런 표정으로 물으신다. "할머니 참 좋은 비싼 담배네요"하고 말씀드리니 장미 담배를 들고 흔드시며 "그러, 어디를 갔다 왔더니 마룻에 이것이 있어서 누가 놓고 갔담싶어 임재를 찾아 줄라고 이것을 들고 온 동네를 돌았어, 그런데 군인대장(?) 어마니가 아들이 갖다 준 것을 나. 먹으라고 갖다 왔대, 신부님 드려도 되겠제" 하시면서 다시 가방에 넣으시더니 "내가 죽을 때가 됐는 갑써, 지난번에는 하도 아파서 약을 지어 먹으라고 돈을 만원이나 갖고 약방에 갔었는데 가만히 생각했게 약을 먹고 나사봐야 뭇혀 싶고 약을 먹어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죽더라도 교무금은 내고 죽어야지 하고 봤더니 두 달치나 밀려서 약 먹을 돈으로 교무금을 냈어 그랬더니 이렇게 뭇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느껴졌다. 요즘 세태가 불교 신도는 부처님 앞에 지폐 몇장을 놓고, 크리스찬은 헌금이나 미사예물을 내고 미사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사업이 잘되게 해 주세요, 우리 집 아빠가 제장인데 이번 인사때는 과장으로 승진 좀 시켜주세요, 우리 큰아들 좋은 색시 만나서 좋은 데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학에 합격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사업체의 고객이 되어 달라는 건지, 권력자가 되어 달라는 건지, 아니면 마담 뽀빠가 되라는 건지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기를 기만하여 귀배팔모 하다가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벌이라도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개전의 여지가 있겠으나 하느님은 자기편이 아니라고 그런 하느님 백 날 믿고 따르면 뭇해 싶어 마칠내는 하느님을 외면하는 알파한 인간의 속세를 보게 된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목격하셨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보다 더 절박한 상황,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헌금을 하신 뿌리 깊은 신앙의 투철함을 보았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새 생명의 불씨를 받은 형제들이 항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던 할머니에게 백 배의 상을 주시라고 기도드렸다. (남원 분당)

해외여행 업무개시  
성지순례(국내외)안내

**전 일 관 광**

전화 ⑥ 6666~8

\*철도청 열차표 발매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교우의 집

**한 일 옷 감**

옷감, 파티복, 침구류, 수의

전화 ⑥ 7203

구 남부배차장  
(영신당한약방 옆)

조 성 순(테레사)

여성의 美는 미용에서!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③ 5289

### 우리의 주장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 되도록 지난 4월 원주와 6월 전주에서 밝힌 우리의 견해를 재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치가 현 정권에 의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1.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모든 양심범은 즉각 석방되고 복권되어야 한다.
2.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고, 추방된 자유 언론인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3. 일체의 고문행위는 철폐되어야 한다.
4. J.O.C와 노동운동에 대한 일체의 탄압이 즉각 중지되고, 부당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과 취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5.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어 소외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6. 학원사태에 관련되어 제적 또는 처벌받은 학생들은 구제되고, 복학되어야 한다.

1983년 7월 25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 □ 교구 산간학교, 잘 마쳤습니다.

—983명 학생 등 1천 1백여명 참가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교구 산간학교가 탈 없이 잘 끝났다. 7월 28일부터 31일 까지 내변산 중계에서 열린 산간학교에는 17개 본당에서 98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을 위해서 본당 지도자 70명과 김 요한 부제를 비롯한 15명의 신학생, 본부임원 16명이 봉사했다. 또한 네분 신부님과 다섯분 수녀님이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7,21)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은 4개 군으로 편성되어 낮시간에는 특강·산책·경기·등산 코스를, 밤시간에는 단담의 시간·참회에결과 미사·모닥불 집회 프로그램을 해냈다. 특히 10.8km의 등산 코스는 힘들기는 했지만 큰 일을 해냈다는 기쁨에 학생들은 만족하기도 했다.

전주교구 제 1회 산간학교가 잘 끝난 데에 대해 먼저 하느님께 두 손 모으며, 도와주신 여러 신부님과 수녀님, 신학생들과 본당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숙식을 함께하며 치료해준 의사 유동열, 박스테파노 형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현지까지 찾아와 격려해 주신 여러 본당도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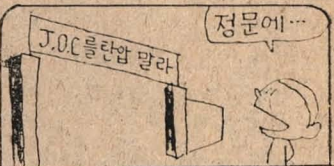
—교육국

### □ 은인을 구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응급조치로 예수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던 교동 소재 최 재필(마오로 19세) 형제는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집으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 전신마비 현상을 일으키며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전동 빈첸시오 아 빠올로회에서는 젊은 생명을 구하여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약 5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입원 치료비를 어쩔 수가 없어 교우들의 도움을 간곡히 호소해 왔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동 사도회 내 빈첸시오 아 빠올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 요심이(522) 김병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중순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등)  
전결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 광 약 국**

구시장 오거리 ② 2800  
이 루도비코(원석)  
최 데레사(순정)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청 자 당 제 과 점**  
**서 울 분 식**

각종 빵과 결혼·생일·선물용 케익 전문

☎ ② 0910  
군산시 중앙로 1가 68(우체국 옆)  
김 보나벤투라(영수) 이 스텔라(규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M.B.W 목상회: 7일 오후 3시30분~10일(3박 4일), 접수순 40명, 참가비-2만원
2. 레지오 마리아 단장 연수회: 13일 오후 3시~14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자-단장·단장 후보자, 회비-6천원, 준비물-교본
3. 제15차 여성 꾸르실로: 18일~21일(3박 4일), 장소-가톨릭 센터
4. 군산지구 M.E 1·2·3차 수강 부부 나눔 모임: 13일 8시 출발, 장소-대야리, 회비-5천원
5. 성심 신자 동문회 야유회: 13일<토> 9시 출발(성심학교), 장소-순창 강천사, 회비-2천원 ※ 많은 참여  
☆ 축! 영명: 성 도미니교(8일)-강 인찬 신부님. 성 라우렌시오(10일)-박 진량, 범 선배, 전 대부 신부님

(중앙)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4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구 교육계획: 공동체 목상회-7~10일,  
레지오 마리아 간부 연수회-13~14일,  
여성 꾸르실로-18~21일, 부부 주말모임-19~21일  
많은 참석하시어 주님과 일치의 기쁨을 누리시길...
3.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460명, 409,073단
4. 성전신축헌금 신인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수남(20만원, 추가 10만원), 한옥희(10만원),  
신입누계-202,502,600원, 납입누계-69,697,500원  
□ 지난주 봉헌금: 833,235원 교무금: 527,500원  
감사헌금: 조로사(5만원) 감사합니다

15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이갑진 ②허순덕  
□ 지난주 봉헌금: 423,2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월례회: 10일 저녁 8시30분
2. 어린이 영세식 및 첫영성체: 15일 10시
3. 성심부녀회: 13일 오후 2시
4. 반장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가방 기증: 150개, 이진옥씨께 감사
6. 차주전례: 독서-①김한기 ②김나섭  
신자들의 기도-김낙완·김옥남·한상철  
□ 지난주 봉헌금: 272,535원 교무금: 216,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번 보좌 신부 나춘재  
사도 회장 이홍재

1. 성시간: 11일 저녁 8시, 많은 참여를 바랍
2. 축! 환영: 예비자 입교식, 오늘 공식미사 중에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중에
4. 어린이 첫영성체식: 15일(몽소승천대축일) 공식미사  
중에 부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5. 분당 올드레야: 14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아파트 소식】

1. 주일학교 영세식: 13일 오후 4시
2. 성모회 월례회: 11일 오후 3시,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8,430원 교무금: 216,0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④9567 사도 회장 김수업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첫영성체: 다음주 공식미사 중
4. 금주 평일미사: 화요일(9일)-없음,  
수요일(10일)-저녁 8시 ※ 평신도 강론-김수업
5. 금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①정주복 ②이원길  
기도-김남곤·장 삼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장 삼 ②김영철  
기도-이규철·남상용  
□ 지난주 봉헌금: 151,310원 교무금: 281,600원  
특별헌금: 67,65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열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구역장·반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성당)
2. 유아세례: 오늘 아동미사 후(4시)
3. 성모승천 대축일 성가연습: 10~13일,  
어머니 성가대-오전 10~11시,  
젊은이 성가연습-오후 5~6시30분,  
어린이 합주연습-오전 9시~10시
4. 200주년 교리경시대회(초·중·고) 준비 교육실시: 모  
두 꼭 참가 바랍니다  
어린이(주일학교 3~6학년)-10~13일 오전10~11시  
중·고등학생-16~20일 오후 4~6시
5. 예비자 교리반(수·목요일 밤)은 무대위로 9월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다음주 모임: L·M 꾸리아  
□ 지난주 봉헌금: 350,050원 교무금: 160,5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길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찬두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2. 자도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오늘 사도회는 없음
4. 광복절 겸 성모 몽소승천 대축일: 15일  
미사시간 주일과 동일합니다
5. 성탄예비자 모집 안내  
수-오후 8시(박찬갈 신부)  
목-오후 8시(박찬갈 신부)  
토-(중·고생) 오후 3시30분(유요카림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6.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유기동 ②김종기  
저녁미사: 해설-이석란, 독서-①이승호 ②경양수  
□ 지난주 봉헌금: 570,960원 교무금: 487,000원

(북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권영교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부녀회·빈첸시오회: 8일 어머니미사 후
3.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주일과 같음  
교백성사-13일 오전 9~11시·오후 저녁8시 미사후
4.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에 일일교장으로 수고해 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중·고생 산간학교: 5박6일 무사히 마쳤음(42명)
6. 수녀원 신축헌금 해주신 분  
권정순·최재준(각 10만원), 송영자·최재홍(각 5만  
원), 강대안·이상기·안정해(각 3만원), 김정두·  
이상철·이영희(각 1만원), 이정자(2만원),  
누계-3,090,000원
7. 금주전례: 해설-은희영, 독서-①이종원 ②김화영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상인 ②정운주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④4804 사도회장 황희상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밤 미사후에 있음
3. 수녀원 공사: 후면에 오시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4. 중·고생 어린이 교리: 8일부터  
북히 이번 교리는 전주교구사 중심
5. 하기 중·고생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
6. 아동 하기 성경학교: 교리교사들에게 감사
7. 성모 몽소승천과 광복절: 15일  
□ 지난주 봉헌금: 229,900원 교무금: 242,800원